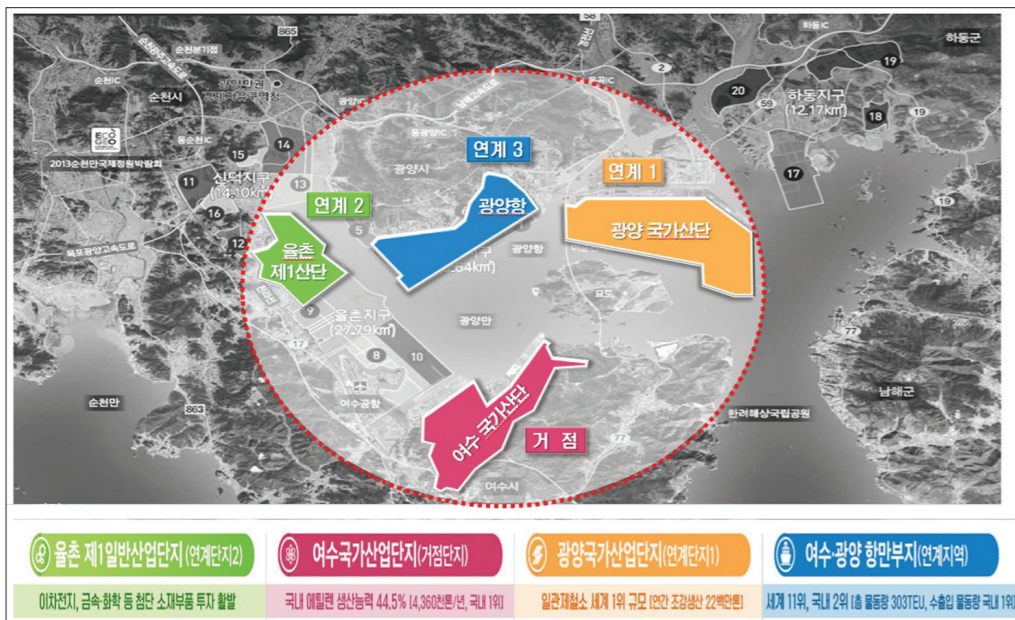


광양만권 산단 디지털화 대개조 추진

전남도, 저탄소 지능형소재 부품 산단으로 변신

오는 2024년까지 국비 1조2000억원 투입 예정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조감도.

전남도가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연계)와 울촌 제1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여수·광양항을 연계할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4일 도에 따르면 광양만권을 저탄소 지능형소재 부품 산단으로 개조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1조2000억원 규모의 46개 혁신사업을 진행한다.

산단 개조 원년인 올해 809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21개 사업을 우선 착수한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은 화학산업 중심의 자원순환·신산업 창출산단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민간투자 지원을 위한 공용파이프랙 구축에 1000억원, 안전성 확보사업 110억원, 환경·안전사고 개선을 위한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리센터 구축에 130억원을

투입한다.

제조업의 디지털화와 미래 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및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에 각각 258억원과 88억원을 지원한다.

철강 제품을 생산 중인 광양국가산업단은 울촌 제1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해 최근 급성장 중인 이차전지 등 고부가 정밀화학 및 금속소재 부품 산업으로 전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공장이 있는 울촌 제1일반산업단은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과 실증,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대중소기업 상생과 일자리 창출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관련 사업으로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220억원), 지역산도 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58억5000만원),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100억원) 등을 실행한다.

아울러 근로자 근로·정주환경 개선과 청년 창업지원을 위해 복합문화센터와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며 아름다운 산단 거리도 조성한다.

박우욱 전남도 혁신경제과장은 “도내 산업단지는 연간 생산액이 100조원에 달하고 이중 광양만권 산단의 생산액이 88%를 차지하고 있지만 시설 노후와 산업 확장성 한계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첨단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유능한 지역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광주 코로나 감염지수 ‘물리코스터’

1.98→0.23→1.49... “추가 감염자 최소화하는데 방역역량 집중”

광주지역 코로나19 감염병 전파력을 나타내는 재생산지수가 가파르게 오르락내리락하며 물리코스터다. (관련기사 9면)

감염병 재생산지수는 감염자(확진자) 1명이 감염시킬 수 있는 평균적인 2차 감염자 수로, 지수가 2.0일 경우 확진자 1명이 평균 2명을 감염시킨다는 의미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지역 누적확진자는 1215명으로, 7명이 사망하고, 894명은 치료 후 격리해제됐고 314명은 여전히 치료중이다.

신규 발생자는 8월26일 39명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해 9월9일부터 진정세를 보이다 11월7일부터 지역 내 4차 감염이 시작돼 두 달 만에 660여 명이 발생했다. 새해 들어 나흘 만에 117명이 확진됐고, 1월3일 74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확진자 수에 따라 감염 재생산지수도 덩달아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성립점례교회 확진자가 무더기 발생한 8월20~26일 역대 최고치인 1.98을 기록한 이후 9월9일 1.01을 끝으로 이후 1.0 이하를 유지하다 같은 달 21일에는 0.23까지 내려갔다.

0.23은 지난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30대 중국 여성)와 1월24일 첫 내국인 확진자, 2월4일 광주지역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가장 낮은 재생산지수다.

그러나 한동안 잠잠하던 확진세가 11월7일 4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1점대를 넘나들다 11월 마지막주 1.43, 12월 둘째주 1.34에 이어 효정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이뤄진 1월 첫째주 1.49로 치솟았다.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장은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동안 0점대던 재감염지수가 1.49로 뛰었다”며 “추가 감염자를 최소화하는데 방역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 “요양시설, 최고 단계 방역+ 무관용 처벌”

광주지역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연거푸 발생하자 광주시가 최고 단계의 방역 조치와 함께 무관용 처벌에 나서기도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과 환자 특성상 가장 높은 수준의 방역과 종사자들의 직업의식이 요구된다”며 “99.9%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0.1%에 위반 사례에 대해선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제재 방법에 대해 이 시장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예외없이 고발 조치하고, 명백한 고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5개 자치구 등)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주 처벌과 각종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배제, 구상권 청구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요양병원 60개를 비롯해 요양원과 정신병원 등 300개에 육박하는 요양시설에 대해 ‘전담관리제’를 실시해 달라는 방역수칙을 그때 그때 성명하고 현장점검도 수시로



이용섭 광주시장이 4일 신년 첫 출근기자 차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당부의 말을 건넨고 있다. (사진=광주시 제공)

시행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이날 5개 구청장과 경찰청장, 요양병원협회장, 대형 병원장 등이 특별 참석한 가운데 민간공동대책위원회를 소집, 노인요양시설의 고강도 방역과 강력한 처벌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요양시설의 경우 외부로의 전파나 내부 동선 면에서는 안전한 측면도 없진 않지만 문제는 높은 치명률”이라며 “자칫하면 여러 환자들이 사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두 군데만 발생해도 충격파가 매우 크다. 추가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민주당 광주 의원들 “전직 대통령 사면반대...사과 우선”

“논의는 시기상조”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시기상조이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련기사 2면)

민주당 광주시장 송갑석 위원장과 이형석·민형배·조오섭·이용민·윤영덕 의원들은 4일 오전 광주 북구 민족민주열사묘역(구 묘역)에서 참배를 하며 새해를 다짐했다.

의원들은 ‘영령의 뜻 실천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헌수막을 펼쳐들고 묵념·헌화

를 하지 않아 5·18이 아직까지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과를 받지 않고 사면하는 것은 국론분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오섭 의원은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며 “현재도 국론분열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사면을 하면) 더 분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영덕 의원은 “국민통합에 대한 이 대표의 뜻은 이해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갈등의 소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미희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